

대행 스님

모든것을집어삼키는지극한믿음과물러서지 않는패기가필요합니다

이날까지 여러분 앞에 두서없으나마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종합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신다면 일체 생활에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항상 제가 "놔라, 놔라! 놓으시오, 놓으시오, 놓으십시오! 모든 건 주인공에다 일임해서 놓으시고 무조건 그렇게 하십시오. 왜 못 믿습니까? 자기를 수억겁 전부터 이끌어서 몸을 바꿔 가면서, 모습을 바꿔 가면서 이렇게 이끌어 온 그 주인공, 근본자리를 왜 못 믿습니까?" 하고 여러분 앞에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으로부터 이 세상이 생겼고, 자신이 태초며 화두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타의에서 구하거나 타의를 믿거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인간다웁게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다웁게 살 수도 없거니와 그 모든 몸의 업식으로 뭉쳐진 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직 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일차적인 문제, 그다음에 나를 발견하고 나서 수련을 하는 방법,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앞에 병을 가져오거나 가난을 가져오거나 또는 어떠한 우환을 가져오거나 괴로움을 가져오거나, 천차만별로 가져오는 그것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온 거니까 그 자리에서 일임하고 놓을 수 있다면 바로 즉시 그것은 해결이 된다고요. 그건 왜 그런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엎어진 사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거기서 병난 거는 거기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60%, 70%가 부족되는 것을 어디서 충당할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충당해 100%로 하려면 바로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업식으로 뭉쳐진 그 속에서 모든 게 해결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또 여러분 앞에 내가 기도를 드려 준다거니 기도를 하라거니 이렇게 해야 된다거니 저렇게 해야 된다거니 이런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는 그대로 병을 가져와도 자기 자신에서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자기 주인공에서밖에는 낫게 할 수 없다는 그런 결정적인 확신을 자기한테 안겨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벌써 여러분의 마음이 가라앉고 또 편안해지고, 가정이 편안해짐으로써 모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자신이 체험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확고하게 발견할 수 있고 감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을 의합하게 화목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가환과 우환, 가난, 병고, 유전 이러한 인과로써 오는 그 업보, 그런 것을 다 면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생기게 하는 그러한 여건입니다.

이렇게 항상 하던 말을 하는 것은 이왕 말을 하려면 이 말을 안 해서는 안 되겠기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것은 일체 자기한테서 나온 거니까 자기한테 놓고 간다. 물론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고, 주인공만이 이 세상에 자기를 형성시켰고, 수억겁 전서부터 진화를 시켜서 사람까지 이끌어온 장본인의 근본이니깐요.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나를 발견 못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놓고 간다. 놓고 가는 데에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게 편해지고 모든 것이 심성 과학적으로, 생활이 심성 과학적으로 돼 나가는 거죠.

그런다면 이차적으로, 이차적이라는 말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얘기를 하려니까 어떡합니까? 이차적으로 나를 발견했을 때 그때서부터 공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놓을 때, 전자의 업식으로 뭉쳐져서 용도껏 자기가 살아나온 대로 컴퓨터에 수록이 된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런 걸 없애는 작업을 한 겁니다. 첫째 그걸 없애게 되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이차적으로, 발견하게 돼 가지고 뭐를 하는가? 이 몸에 들은 내 중생들하고 둘로 보지 않는 거, 부처와 나와도 둘로 보지 않는 거, 일체 중생과 나와도 둘로 보지 않는 그걸 습득한다. 둘로 보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父)와 자(子)가, 자기와 자기가 둘로 보지 않는 반면에 스스로서 움죽거렸다 하면 자가 되고 가만 있으면 부가 되니까 둘로 보지 않으나 마나 둘이 아닙니다. 그 뜻을 잘 생각하십시오.

마음이라는 것은 온 도량 한울에서, 즉 하나로서의 이 마음을 내게 하는 겁니다.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내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주인공, 그 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내게 하는 자는 바로 불성의 능력이라고 하고, 마음으로서의 육체를 움죽거리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둘로 보지 않을 것!

다음에는 모든 걸 둘로 보지 않는 까닭에 이 모두가 수록된 게 하나하나 풀려서 나올 때에 제자리에 다시 놓으면서, 처음에 하던 거와 마찬가지로 다시 놓으면서 실험을 하면서 체험한다면 이 중생들을 제도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하나 업보로써 맺어진 인연들이 화해서 보살로 이어진다.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살로 화한다는 얘깁니다. 사람이 사는 데에 음과 양을 통해서 사람이 되고, 음과 양을 통해서 돼지 소굴로 들어가면 돼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그 업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과에 의해서 뭉쳐진 그 자체가 아주 정밀하게 파헤치고 나오는 겁니다. 현실에, 나에게, 모두 각자.

그러니 나를 발견해서 그때서부터 '공부'라고 이름하죠, 그것도. 공부를 하는 수행의 여건을 아주 치밀하고 무겁게 하면서, 가볍게 바깥에는 끄달리지 않는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생활 속에서 나오는 대로, 바깥에서 오는 대로, 안에서 일어나는 대로, 마음이 있는 거든지 마음이 없는 거든지, 무(無)의 귀신이든지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 환상에 끄달리지 않는다. 환상에 끄달리지 않는 반면에 모든 것은 이 중생들이 전부 화해서 너 나가 없이 그렇게 스스로서 돌아간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이 말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은 나를 발견해 가지고서도 공부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라 가지고 한창 예민해졌을 그 무렵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좋은 게 보이면 '아이구, 부처님이 보였다.' 하고 우쭐하기도 하고 '마구니가 나타났다.' 하고 버리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때 또 어렵지요. 하다못해 풀 한 포기도 버리지 않는, 그냥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지극한 믿음과 물러서지 않는 패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때는 당차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의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믿고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나를 발견해 가지고는, 이런 예가 있었죠. 제가 어느 길을 가는데 아주 그윽한 산이 닥쳤습니다. 그때가 몹시 늦은 가을이라 추웠습니다. 밤은 깊어 가는데 길이 있으면 그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 그 깊은 골짜기가 길이라는 겁니다, 내 스승이 말입니다. 그때에 의정을 내는 겁니다. '왜 길을 두고 길이 아닌 길을 길이라고 하나?' 하고 의정을 내는 거지 덮어놓고 알지도 못하고 의정을 내는 거는 무모합니다. 알고 의정을 내도 아니 되고 모르고 의정을 내도 아니 되고! 그건 왜냐? 나를 이끌어 주는 스승이 있어서 '이것이 도대체 뭔가?' 하고 의정을 낼 때 크게 의정을 내게 되는 거

☞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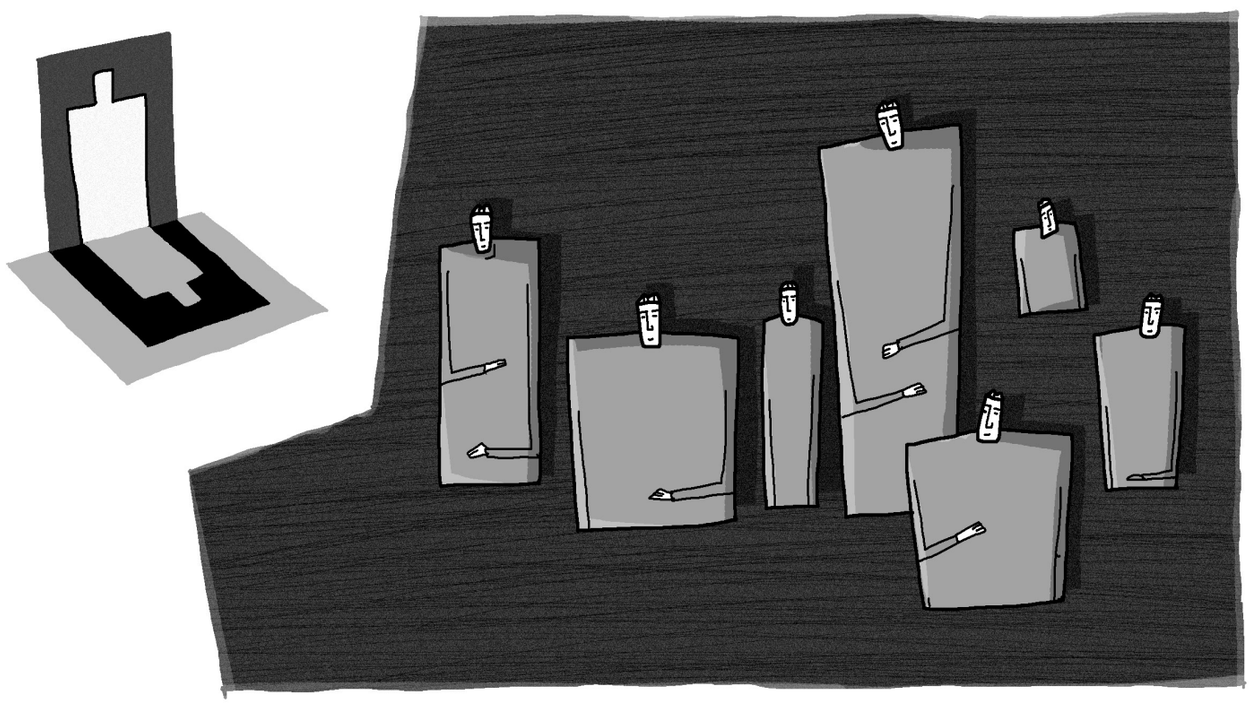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